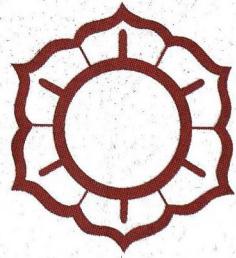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4년  
7월 1일  
목요일  
제57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만큼 그의 생애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도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고해진다.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거쳐서 진리를 체득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요…”

###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

총지종은 총기33년도 여름 학생 수련회를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생은 경북 경주에서 중·고등학생은 전남 보성과 순천에서 각각 2박3일 동안 개최하여 총지종의 수행법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포교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초등학생들에게 불교의 최대 성지인 경주를 주요 체험공간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 천년의 고도에 위치한 불국사, 천마총, 안압지, 첨성대 등을 탐방, 불교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불교문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과 역사를 인식시킴으로써 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 정통성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경주에 위치한 총지종 사원인 국광사에서 입재식과 회향식을 가짐으로써 총지종의 사원과 의식을 실수하도록 일정표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녹차의 대량 생산지



지난해 여름학생 수련회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안동의 하회미을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생들의 업장소멸과 자비실현”

#### 하반기 49일불공회향 방생법회



부산경남교구 스승님과 보살들이 함양군 농월정에서 열린 방생법회에 참가하여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빌원하고 있다.

“지금 허공과 육지와 물속에 사는 중생들이 남에게 잡히고 죽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살행을 닦으면서 자비한 마음을 내어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대승의 방등경전에 따라 삼귀의 계를 일러주며 여래의 십호를 외우고 십이인연을 말하여 이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여 삼보의 위신력으로 해탈케 하소서.”

총지종은 하반기 49일불공을 7월 15일

회향함으로써 그 공덕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방생법회를 오는 7월 16일 전국사원에서 각 교구별로 봉행할 예정이다.

우승 통리원장은 방생법회에 즐음하여 “방생법회는 불교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미침내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를 중시한 계율이며, 방생은 불살생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

이며, 살생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된 생명을 구해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생은 불자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방생법회를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주어 자신과 자기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 듯 하지만 방생은 자기만을 이용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하며 공덕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공덕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생은 한갓 미물을 방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널리 행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의 여건을 제거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이웃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해탈케 하는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길이 진정한 불자의 도리입니다.”라고 밝혔으며 “방생법회를 통해 각자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무릇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지종은 7월 16일 부산경남교

구는 합천군 합천읍 용문정, 대구경북교

구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 서울

경인교구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각 교구

별로 방생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7월 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5월 17일 서울 통리원에서 승단총회를 열고 제9대 종령으로 추대한 효강 대종사 종령 추대법회를 오는 7월 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님과 교계관계자,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예정이다.

종령 추대법회 준비위원장인 우승 통리원장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는 종단의 최고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여법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추대법회를 계기로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각종 의식과 의례의 변화와 대사회활동의 활성화로 종단의 내실을 기합과 동시에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제2의 창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맹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효강 종령예하는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종단내적으로 통리원장, 교육원장, 법장원장 등을 역임하고 외적으로 불교방송이사,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5월 17일 총지종 제9대 종령으로 추대되었다.

총지종은 효강 대종사의 종령 추대법회를 계기로 침체된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각종 의식과 의례의 변화와 대사회활동의 활성화로 종단의 내실을 기합과 동시에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제2의 창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비소리

오늘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악업은 나아가지 않는구나  
들어가고

내일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선업은 줄어들며

금년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번뇌가 한이 없고

내년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깨달음으로

시간이 훌리흘러 하루가 급히 지나가고  
나날이 훌리흘러 보름 한달 속히 되며  
한달한달 계속되어 훌연히 일년 지나가고  
한해두해 거듭하여 문득 죽음에 이르도다  
『벌심수행장』중에서

##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선 정통밀교 종단 총지종!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총지종의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왕립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33년(2004년) 7월 20일 오후3시
- ◆ 장 소 : 불교 총지종 총지사
- ◆ 대 상 : 사부대중
-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불교총지종 종령추대 봉행위원장 우승

## 사설

## 매너리즘을 경계한다

한국의 밀교종통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안고 총지종이 창립된 지도 어언 30여년을 넘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내적으로 도제양성 및 교육제도, 포교방법, 사회복지 등 여하면서 성숙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고, 교화적인 면에서도 초창기의 열화와 같은 교세가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시대의 빠른 변화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만족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세와 스스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며 교화와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신은 제대로 펴지 못하고 집단에 의지하여 소수의 의견에 종단의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데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한 사안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소신 있게 왜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했던 것이 과거 종단의 사정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은 우승 통리원장이 취임한 이후 많이 개선되어 다행한 일이다 할 수 있다.

승직자라면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행동을 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임시방편에 의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하는 자세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소임을 맡은 책임자는 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대중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승단 전체가 극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며, 자기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정책과 생각에 대해 비방과 시기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방에 앞서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현재 종단내에서는 종단의 장래를 걱정하며 불철주야 방안을 모색하는 출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 숫자가 극히 미미하고, 청중 초기의 교회에 대한 불같은 열의는 자취를 감추고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타성이 언제부터 습성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절대적절의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종단의 장래에 대하여 종단에 새비밥을 넣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주지 못할망정 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 발목을 잡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종단발전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자신의 체통을 세우려 한다는가 협소한 심성으로 개혁과 개선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매너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자는 스스로에 대한 소신도 자신도 없을 뿐더러 현재의 인 일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전통고수를 위치하고 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승단전체가 본연의 의무를 다시 한번 대오각성하고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추구할 때에 이러한 상황은 타개될 수 있을 것이다.

효강 종령에 하께서도 '종단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방법을 개혁하여 교세활성화에 한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종단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승단전체는 과거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각자 청정한 계율과 수행, 자기 수양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종단의 일대 쇄신을 천명하셨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매너리즘을 버리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각자 일대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 “기도와 구원으로 개최”

## 제25차 한일불교교류대회



◆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한국 불교대표단과 일본 불교대표단이 일본 정토종 대본산 광명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 교류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제25차 한일 불교교류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정토종 총본산인 광명사에서 '기도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종화종 등 한국 불교 종단의 대표자들과 일본측의 미야비야시 쇼겐 스님과 타니 켄소스님 등 일본측의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구상에서

전쟁과 반목, 갈등이 소멸되고 세계 인류의 평화실현을 위해 협력하며 전세계에 불교의 흥포에 앞장서고 한·일간의 불교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9일 광명사에서 열린 본대회와 세미나에서 양측 대표단은 "지금의 세계는 국기이기주의와 물질적 유풍이 팽배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에 종단의 우수성을 알립과 동시에 밀교 종단으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지력과 보살행을 성취해 나가고, 평화주의에 철저한 종교가 바로 불교이며 불교의 화합과 관용정신에 따라 자비실천으로 세계의 평화를 구현해 나가자"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10일 도쿄 우천사에서 한일 양측이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으로 고국을 떠나 일본땅에서 죽음을 맞은 1136위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공동 위령제가 열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나먼 타향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들을 불교대표단들이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려 지난 과거의 참상을 재 Aynı식하게 되었다.

한일불교교류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정토종, 진언종 등 일본불교 대표종단들의 종본산을 탐방하고 일본 불교의 의식과 사찰형태, 일본불교의 국가적 위치 등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불교 국가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과 동시에 한국불교의 방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총지종은 월초불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종화종 등 한국 불교 종단의 대표자들과 일본측의 미야비야시 쇼겐 스님과 타니 켄소스님 등 일본측의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구상에서

## 동해중 풍물패 경연대회 금상

## 양로원 방문, 이웃사랑 실천



◆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동해중학교 풍물패 학생들이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다.

동해중학교(교장 강경중) 풍물패가 지난 6월 13일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문화관광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주최하는 제 29회 전국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풍물놀이 경연에 참가하여 풍물부문 중등부 최우수상인 금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국악, 무용, 풍물부문으로 일반부, 학생부로 나누어 경연을 펼치는 권위있는 대회로 부산 지역 및 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동해중학교 풍물패의 금상수상은 부산지역에서 동래중학교 풍물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과 동시에 우수한 연주 실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어 차후 풍물패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마련하였다.

## 알림판

- 하반기 10일 불교문화 페스티벌을 7월 16일 대구경북교구는 경남함양군 안면면 농월정, 부산경남교구는 합천암 응문정, 서울경인교구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봉행함.
-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7월 20일 서울 종지사에서 봉행함
- 여름학생수련회를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북 경주와 전남 보성에서 개최함.

이들이 이웃사람을 실천하게 된 동기는 2년 전 풍물패 출연생들이 용돈을 모아 양로원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인연이 되어 매년 연말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공연을 한 후 받은 출연료와 학생들 스스로 용돈을 조금씩 모금하여 학교 주변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치고 모금한 금액으로 과일과 떡,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펼치고 있다.

한편 풍물패를 지도하고 있는 김광무 교사는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며, 학생들이 양로원을 방문하는 등 선행을 실천하고 있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풍물패 연주를 하면서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악기 구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심있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하였다.

##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

## 대회를 다녀와서...

본당은 1964년 원공 되었다. 본문사에서 일본불교의 특징인 종파불교(宗派佛教) 그리고 조사불교(祖師佛教)의 의미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다음 일정에 따라 방문한 가와사카(川崎)시에 위치한 진언종지산파(眞言宗智山派) 평간사는 조사불교라는 일본불교의 특징을 더 잘보여 주고 있다. 평간사는 우리 종과 같은 밀교종단인데 일본 진언종의 개산조 고오보오다이 시구우카이(弘法大師空海)의 존상을 대본당에 봉안하고 "나무 다이시한조공고(南無大師遍照金剛)"를 염송한다. 또한 일반불자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호마법(護摩法)을 시행한다. 호마의 수행은 심오한 내용을 간직한 철학적인 의의와 올바른 밀교의 교리에 뒷받침된 종교의식이다. 호마란 범으로 "태우다"라는 뜻으로 부처의 지혜라는 불을 가지고 번뇌를 태워 버리는 것을 뜻한다. 평간사에서는 흥법대사공해를 모신 대본당에 호마단을 만들어놓고 집전 스님이 호마리를 태우면서 흥법대사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으로 호마법을 시작하여 "나무다이시한조공고(南無大師遍照金剛)"를 염송하면서 진행하는데 흥법대사의 공덕과 호마법을 시행하는 집전 스님의 공력과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불자의 공덕이 하나로 모여 엄격한 호마의 수법(修法)에 의해 가지(加持)되어 번뇌를 깨끗이 태워 대액을 소멸하여 집안의 안전, 사업번창, 질병제거, 소원성취 같은 현세적 이익이 다 할 것을 서원하는 호마법을 매일 시행한다.

다음 날 한일 국 대표단과 참석자 일행은 도쿄(東京) 외관에 위치한 우천사로 갔다.

우천사는 태평양전쟁 때 회생된 조선인의 유골 705위가 안치된 절로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양국 불교인들은 한인 징용 희생자 위령제를 같이 봉행하여 그들의 혼백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하였다.

일정 삼일째 어제 밤부터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되어 본문사(本門寺)를 방문했다. 본문사는 일련종(日蓮宗)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대부분이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가 1945년 이후 새로 이 건립된 건물들이며 대당과

박현수/통리원 교무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종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종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종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4년 5월 27일부터 2004년 6월 25일까지

개천사	김수향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삼밀사	허정남	50,000	정각사	김병진	20,000	혜정사	수중원	20,000
개천사	김옥희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삼밀사	홍종열	20,000	정각사	김정남	1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개천사	김임준	20,000	밀인사	안옥진	20,000	성회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회음사	강석영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김정자	10,000	회음사	박옥자	10,000
개천사	이장섭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수인사	김진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회음사	서은열	5,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수인사	한애숙	40,000	정각사	박영숙	10,000	회음사	서준열	5,000
관성사	김병석	10,000	백월사	차노명	10,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박운용	3,000	회음사	이순석	5,000
관성사	빅현숙	10,000	벽룡사	보심광	5,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회음사	정기만	5,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벽룡사	오미순	5,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변순계	5,000	회음사	최민정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삼밀사	강미영	10,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설성희	5,000	회음사	최영미	10,000
관음사	신막심	10,000	삼밀사	김상우	20,000	실지사	박병성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회음사	최영하	5,000
기로원	대관	20,000	삼밀사	김화자	10,000	실지사	이숙례	5,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회음사	김현숙	20,000
기로원	대자행	20,000	삼밀사	백진국	30,000	실지사	이우분	5,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회음사	강순란	5,000
기로원	법장화	20,000	삼밀사	심명미	10,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회음사	김남연	10,000
기로원	상지화	20,000</												



##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대담자 : 화령(이중석)/법장원 연구원  
정리 : 지정(김용주)/총지종보기자

# 청정한 계율과 시대변화에 동승한 종단발전

▶ 대담자 : 종교로 추대되심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현재 총지종의 수행체계 및 의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원정 종조님께서도 청종당시에 이원원리에 따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교회방편을 달리하여 포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종당시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합당한 의식과 의례로 교회하여 교회가 활성화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한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교회방편도 변화해야 하며, 밀교적 색채와 의식에 합당한 의식과 의례를 개발해야 합니다.

▶ 대담자 : 계행적인 면에서 예전에 비해 종단의 계행과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의 종단사정을 보면 계율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조님께서 편의보발로 등류법신처럼 교회하라고 하신 깊은은 엄격한 계율과 수행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단도 법조회에 나와 있는 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시에 따라 엄격한 계율을 지킬 때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회발전을 이루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근본은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수행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율만이 종단의 생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불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생, 사내를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동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조님께서는 교회가 부진한 사원의 스승을 학부로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진한 사원의 스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른 사원도 교회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승은 당시원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하고 자신의 허물을 찾고 스스로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종단을 보면 한번 사원을 맡으면 너무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어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의 쇄신차원에서 대체적인 인사이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스승들의 경우 가정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회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종의 상황을 보면 종단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지방교구의 활성화가 추진되어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타종단의 경우는 각 지방별, 사찰별로 자신들의 고유권한과 이권을 추구하고 있어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아직 역사도 짧고 여타 조건이 부족하여 현재는 중앙집권적인 행정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종단의 규모가 커지고, 교세가 발전하여 지방 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지방활성화를 모색해야 되리라 봅니다.

▶ 대담자 :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제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도제들이 종단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때 만이 종단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제가 전에 통리원장 재임시에도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 왔고, 도제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도제양성을 위해 적립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제양성을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훌륭한 도제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종단의 승패는 도제양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승단전체는 도제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종단의 도제정책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대담자 : 또한 승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회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승님의 재교육은 꼭 필요하지 않아 생각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승 재교육에 대한 고견과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우리 종단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고, 또한 교육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교육이라는 사실을 볼 때 교상과 사상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새가 양쪽날개로 날개짓을 할 때 날수 있는 것처럼 교상과 사상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종지대학을 활성화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체계를 바로 잡고 인력을 보강하고 승직자의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장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원들이 일선사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식과 의례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단의 수행체계와 사원의 장엄화는 법장원의 세밀한 연구와 승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히 실시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 대담자 : 종법상 본 종단은 다른 불교계 종단들과 달리 종령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단의 경우 종정은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 사법과 전법을 관장하고 모든 종무행정은 종무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조계종처럼 종단의 규모가 크면 당연히 종령은 교법과 사법만을 관장해야하고, 통리원장이 모든 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종단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권한의 문제를 논하는

인해 인원을 감축하고, 재정을 감축하여 복지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복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대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포교입니다. 앞으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도 청소년포교차원에서 괴산에 수련원을 만들어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포교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대담자 : 청정수행 종단으로 발전시키고, 종단발전과 수행정신을 더 높이기 위하여 승단과 교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앞으로 사법과 전법을 관장하는 최고어른으로서 어떻게 종단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종단은 수행이 근본이 되어야 하며 그 근본은 청정한 계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가불교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현교의 스님들보다도 더욱 엄격한 수행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러한 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직자들은 이 점을 특히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속동수(僧俗同修)로써 스승과 교도가 다 같은 수행법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종단의 여려 가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교회방편을 개발할 것입니다. 전 종단이 참조 초기처럼 일치단결하여 지혜를 짜내고 용맹정진한다면 우리 종단도 다시 한번 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대담자 : 마지막으로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특히 승단의 스승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신성불과 중생교화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을 때의 굳은 결의를 항상 되새기고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생제도의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정종조님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므로 교회방법은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직자 여러분들의 자기 통찰과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틀에 갇혀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아와 합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자기 개발과 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도 여러분들에게는 종단의 시책을 잘 따라 주시고 우리 종지종을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데 대하여 그저 고마운 마음만 있을 뿐이며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담자 :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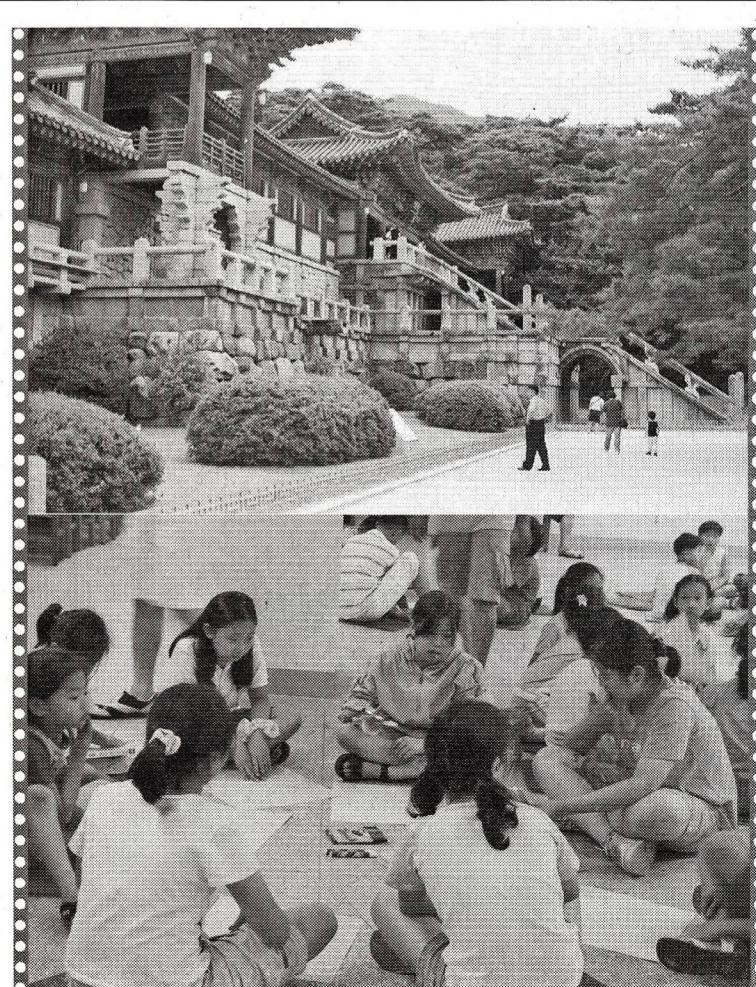
## 엄격한 계율을 지킬 때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회발전 가능 훌륭한 도제양성과 사회복지 활성화로 종단의 미래를 약속

▶ 대담자 : 현재 본 종단은 의식과 의례 등이 사원마다, 주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단의 수행체계를 다양화하고 사원을 장엄하여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지종의 의식과 의례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확립

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만이 종단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통리원에 있을 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지만 당시에는 초창기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 복지 사업의 밀거름으로 발판을 삼아 복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종단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 제14회 불교총지종

### 여름학생 수련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문화탐방을 통해 조상의 혼을 느끼고, 전남 보성의 녹차밭에서 한국 전통의 차문화를 체험하고,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득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확립하는 여름학생 수련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1. 어린이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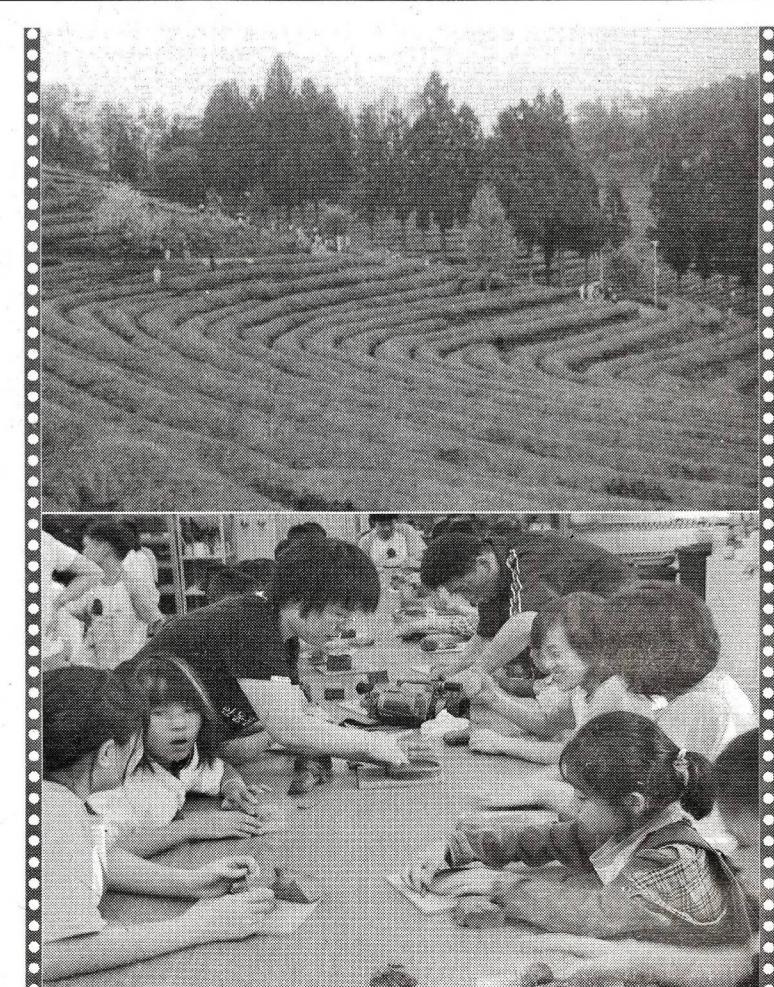
- ◆ 일 시 : 총기 33년(2004년) 7월 26일~7월 28일
-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일대
- ◆ 대 상 : 초등학생

#### 2. 청소년 수련회

- ◆ 일 시 : 총기 33년(2004년) 7월 28일~7월 30일
- ◆ 장 소 : 전남 순천, 보성
- ◆ 대 상 : 중. 고등학생

#### 3. 공통

-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청소년은 수영복, 수영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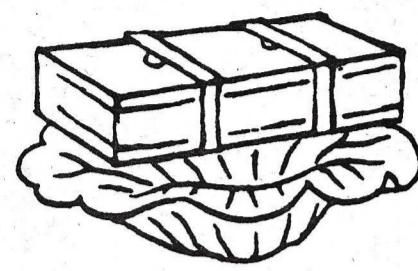
##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16)

태장계만다라 '변지원(遍知院)'의

우루빈라가업(優樓頻羅迦葉)·가야가업(伽耶迦葉)

지난 호에서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 가운데 철구지불모(七俱佛母)와 대안락불공 진실보살(大安樂不空真實菩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 변지원의 마지막 존상인 우루빈라가업과 가야가업에 대해 살펴본다.

&lt;편집자주&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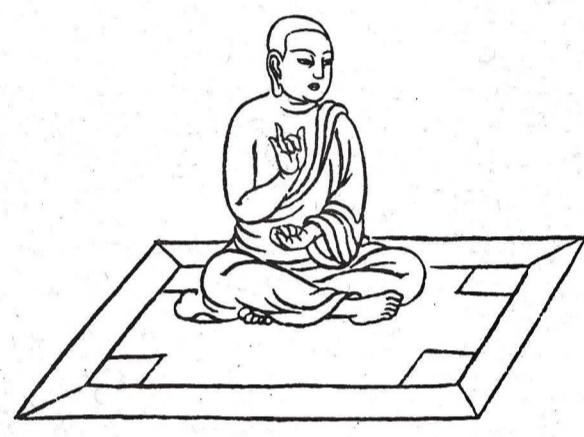


범합

우루빈라가업은 우루빈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불(火)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수행자 집단의 우두머리를 나타낸다. 석존의 신변(神變)에 의하여 석존



우루빈라가업



가야가업

타 훔'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인연에서 해방된 자여! 업(業)으로부터 생긴 자여! 훔!'이라는 뜻이다. 이 존상의 존자는 '혜(慧)'자인데 hetu(인연)의 머릿글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가야가업은 우루빈라가업과 같은 형제로서 그의 동생이다. 밀호(密號)와 존형(尊形)이 다를 뿐 그 외는 모두 동일하다.

삼마야형이나 인상, 그리고 진언도 똑같다. 밀호는 '이진금강(離塵金剛)'이다. 의미는 티끌 먼지로부터 멀어지는 금강이라는 뜻 정도가 되겠다. 존형은 오른손은 바깥쪽을 향하고 왼손은 가사의 한쪽 끝을 잡고 좌구(坐具)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진언종자도 같은 '혜(he)'자이다.

다음 호부터는 연화부원(蓮華部院 - 또는 관음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lt;자료정리 : 법장원&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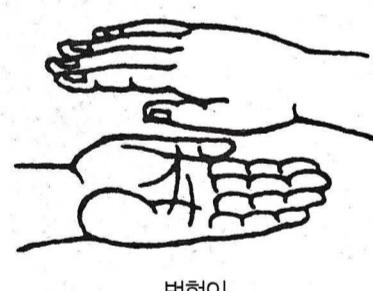
우루빈라가업은 선교금강이며 인연에서 해방된 자

가야가업은 이진금강으로 먼지에서 멀어진 금강

의 제자가 되어 석존의 교단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존상으로 묘사된다.

밀교적 명호로 선교금강(善巧金剛)으로 불린다. 삼마야형은 범합이라 불리는 것으로 연꽃 위에 놓인 보물상자이다.

존형(尊形)은 살색으로 합장하여 좌구(坐具)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인상(印相)을 범합인 이라 한다. 이 우루빈라가업의 진언은 '나모 사만다 봇다남 게이트하라짜야 비기타 가라마 니리자



범합인



## 이달의 명상

수행인은 모름지기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부려지지도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나 초기일관하는 태도를 대나무에 비유하고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도에 합치되도록 피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 밭심하였을 때 이루고자 했던 그 광세를 상기하면서 자신을 꾸짖고, 계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항상 바른 신심속에서 불법을 실

## 뜻과 절개를 굳게 지켜라

천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손 한 번 들고 밟 한 번 놓는 일이 복 짓는 일이 아니면 허물은 짓는 일이고,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한 생각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복과 허물이 천지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다면 어찌 경망되어 노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사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솔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허물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갖추어야 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고집을 부립이 없이 곧바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lt;편집자 주&gt;

##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봤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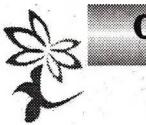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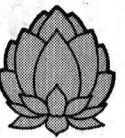
##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아제 아제 바라아제

## 폭력이라는 질병 그리고 국가주의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 살해된 고 김선일씨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흥역을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인에 대한 복수와 국가의 체면유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전투병을 보내 테러분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견대립의 이면에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각각 다른 평가 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를 뿐 뽑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테러사건은 우리국민이 국제테러단체에 의해서 최초로 희생된 사건이기도 하려니와 워낙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운명을 달리한 점, 그리고 국익이라는 명분 앞에 한 자연인의 생명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반 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종교인 불교를 실행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 시점에서 폭력에 대해 무엇인가 나름대로 깊이 성찰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자신들은 분명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자들이다. 선협적으로 근본 무명에 훨씬여있기에 탐욕과 분노라는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결과 폭력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잠시만이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폭력이라는 만성적 난치병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의 사소한 폭력에서부터 애국이라는 타이틀로 미화된 국가간의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극단적인 폭력에 이르기 까지 너무도 많은 폭력적인 요소가 우리 가까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상처받기 전에는 우리 대부분이 폭력 불감증에 걸려 대충 얼버무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수있다. 즉 우리에게 폭력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무엇인 셈이다. 그렇다고 절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협적으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성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누구라도 지혜의 힘을 길러 근본무명을 없애면 열반에 들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승화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실존적 한계 때문에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의 건전한 지성을 너무나도 쉽게 마비시켜온 소위 〈국가〉라는 것의 존재가치와 그 한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인류의 수많은 역사적 과오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주의의 망령 앞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던 빼이쁜 삶이 생생히 남아있으며, 이번에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 정책결정과는 무관한 국민이 살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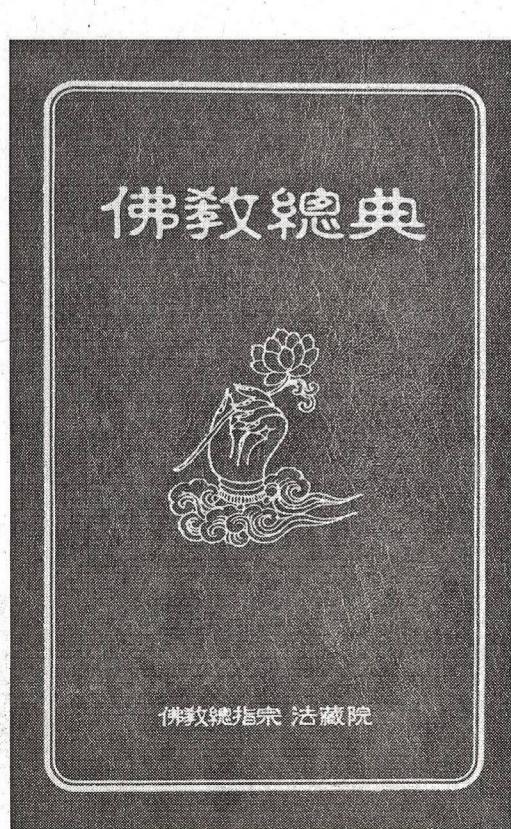
더욱이 그를 납치 살해한자들도 단순한 강도나 정신병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집단이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제식민통치시절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의 영웅들이 있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국가주의라는 난제에 부딪치게 된다. 해결책이 아득해 보이지만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정당한 폭력은 없다는 그래서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오히려 단순 명료한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상대적인 수많은 관계로 엮여있는 현실생활 속에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되어야하는 것들도 있다. 일명 정당한 폭력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적인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정정도의 자유를 유보해야만 하고 그 기본 틀을 존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추상물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즉 국가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오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때리야만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폭력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합리적인 이상만으로 단련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억압과 살생이 끊이질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순과 불행의 고통으로부터 조급이리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국가라는 공통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한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국가를 이루고 사는 구성원들의 지성적인 판단 능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필자는 국가와 폭력에 대한 긴 담론을 펼어가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그럴만한 지면상의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준비된 전문적인 식견도 없다. 다만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큰 혼돈과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램이 있을 뿐이다. 살고 싶다는 한 깊은이의 질규와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권리당지들의 결단 사이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전진한 양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lt;김선미/인드리망생명공동체 총무국장&gt;



佛教總典 法藏院

## 총지논단

## 실천공부 (12)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쓴 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청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 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시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lt;편집자주&gt;

마련해 둔 것이다.

천종 만종 가운데는 어떠한 종파 하나가 실천하고 지도해서 정도(正道)를 세우게 된다면 천종 만종의 종파가 따라서 다 실천하고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만약 그때에 실천하고 지도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종파는 그로부터 없어진다는 연고이니라. 이것은 서로 달라져서 양극과 음극과 같이 서로 접촉하지 않고 상대가 되어서 경쟁하는 것은 피차가 발달하는 방법이요 한 집안에 여러 종지를 가져서 투쟁하는 것은 피차가 쇠하고 없어지는 범인 깨닭이다. 백전(百千) 학자(學者)가 다 내 학자만 같지 못한 종파가 선 곳에는 다른 사상이 절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고로 자유세계를 세우는데 종교 발전은 사람의 심장 안에 동맥과 같은 것이다.

## 총지(宗旨)

## 인간적 윤리를 세우자면 여러 종교 종파가 각자 종지를 확고히 해야함

사람이 정열을

세우는 때는 절개는 무언 중에 서게 되고, 교가 자기 종자를 세우는 때는 정열을 자연 서게 된다. 남녀가 서로 정조를 오고 가게 되면 종자는 피차간 상대가 되어 있는 깨닭으로 내게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고 저이가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승적 유익함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종파간에 종자를 굳게 세우지 않고 일정없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든지 민족적으로 보

게되는 원동력이 되느니라. 윤리 원칙과 종지 방편이 다른 교에서 한집같이 서로 오고 가게 되면 종자는 피차간 상대가 되어 있는 깨닭으로 내게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고 저이가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승적 유익함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종파간에 종자를 굳게 세우지 않고 일정없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든지 민족적으로 보

든지 정치적으로 보든지 남녀간 정조를 보든지 일체 지조가 없고 사업은 풍타 낭타가 되어서 근본 토대가 있는 장구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 자유세계의 공도(公道)에

## 따르는 행사(行事)

양을 쓰면 행복되고 음을 쓰면 고통되므로 봉건시대는 음으로 어두어서 작게 살았고 민주시대는 양으로 밝아서 크게 살게 되나니 우리도 이로부터 곧 양을 쓰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물은 양에 살아나고 음에 죽어가므로 양을 쓰는 나라는 부귀하고 음을 쓰는 나라는 빈천하다. 양지에는 살기 좋고 음지에는 살기 어렵며 양지에는 수입이 많고 음지에는 수입이 적어서 양을 쓰면 행복되고 음을 쓰면 고통된다.

유(儒)는 음을 피리하고 불(佛)은 양을 따리운다. 이 우주에는 태양이 새로 밝아지고 인간에는 불법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워라. 사월 팔일 석존 성탄절을 어느 누가 경송하지 않겠느냐. 심인불교는 현세안락 새불교라 칠일마다 침략없는 심인 하루날은 물심양원(物心兩元)을 세우고, 일년 일차 기념하는 삼보 사대절은 유무상의 이월을 세우는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불타 되실 일생보처 위에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임금이 되시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이전 구백 팔십년전 인도 거비나국 정반왕의 제일 왕비 미야부인에게 태자로 탄생하시어 설산 수도에 육년간 용맹정진 하시와 설흔 한살 되시던 해에 이월 팔일 새벽에 비로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 학혜(學慧)

각해(覺海)는 깨닫는 바다 불교를 말한 것이니 불교는 원래 깨달음을 근본하고 그 가르치는 뜻이 바다와 같이 깊으므로 넓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해인(海印)은 각해 심인을 두 글자로 줄인 것이니 깨달은 이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모든 법을 비추어 봄이 마치 풍파가 가리않고 고요한 바다에 일만 형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음을 이르니라.

## 포교(布教)

이성은 암흑에 된 오백년 동안 범절을 주로 하던 시대는 다하고 진실이원 시대로 들어가는 초기에 벌써 물질에 대한 실리는 자발적으로 원하고 배우게 되었으나 심인에 대한 진리는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처한 과학만 이는 이에 대해서는 물심에 선호분들이 비꾸어 있는 것을 먼저 알리어서 불교의 생사 열반, 곧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극락간다는 두 원리 가운데 살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먼저 지도하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원소를 실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과학을 배운 이에게 현세에 인과가 분명하여 실증하고 내용할 수 있는 심인불교의 방법은 과학과 현밀(顯密)이 다를지언정 그 이론과 법칙은 하나인 것임으로 쉽게 알게 될 것이요 동시에 깊고 깊은 미묘한 법에 이르기까지 깨닫고 실천케 할 수 있는 것이다.

&lt;자료제공 : 종학연구실&gt;



남녀가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나 종파가 서로 종지를 확고부동하게 세워야 되는 원리가 꼭 같아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의 남편을 탐하게 되면 자기 집도 안되고 그의 집도 안될 것이며 자기 자손도 안되고 그의 자손도 안되는 것이 마치 가뭄에 풀과 같이 타고 없어지며 장마에 풀과 같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자가 다르고 교회만 다르더라도 자유세계의 종교로서는 각각 세워져야만 되는 것은 진각님께서

## 조선화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 요실금(尿失禁)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이상으로 사회적 활동 또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여성인구의 30% 정도에서 요실금을 호소하며, 노인층에서의 발생빈도는 더욱 높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광 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방광의 확장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방광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300~400ml에서 200~300ml로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또는 수술 등으로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근육과 방광이 처지거나 폐경기 이후

요도와 방광의 혈관들이 위축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생리적인 면으로 남성의 1/4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요도길이도 요실금의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대뇌의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 방광 충만감을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소변을 볼 적절한 장소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인에서의 요실금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보다는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변화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한의학에서는 요실금의 원인을

##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1.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방광과 주변생식력이 약해져 발병하는 경우
2. 평소 하복부가 냉하거나 하체가 약해 방광 결속력을 저하는 경우
3. 반복적인 출산과 수술, 유산, 폐경으로 방광을 비롯한 자궁, 요도,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경우
4.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상태를 통해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방광 및 소변배출기능이 무력해 질 경우

치료는 하복부에 위치한 방광, 자궁 및 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운을 보강하며 혈액순환을 돋고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진 간, 심장, 신장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중약, 기탕, 유히지황탕, 신기환 등의 처방을 활용합니다.

또한 외치법으로 사상자, 익모초, 쑥 등의 약재를 끓여 기운을 질내로 쏘여주거나 세정을 하는 좌후육과 한방좌약 등을 이용하여 질 내에 삼입함으로써 수축력과 방광 및 생식기능을 회복하는 치료효과를 배가시키게 됩니다.

## \* 요실금예방법

1. 골반근육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2.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

3.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알콜, 카페인함유제품, 초콜렛, 탄산음료, 설탕, 인공조미료, 신파 일크림 등)이나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4. 변비가 있을 경우 복압상승의 요인이 되어 방광을 자극하면서 요실금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5. 흡연으로 인해 과도한 기침을 하게 되는 것도 요실금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비만의 경우 복부지방으로 인해 복압이 상승하거나 골반근육이 약해져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한다.

여성 미 한의원 원장 ☎(02)545-0072

## 여성 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불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단),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성작과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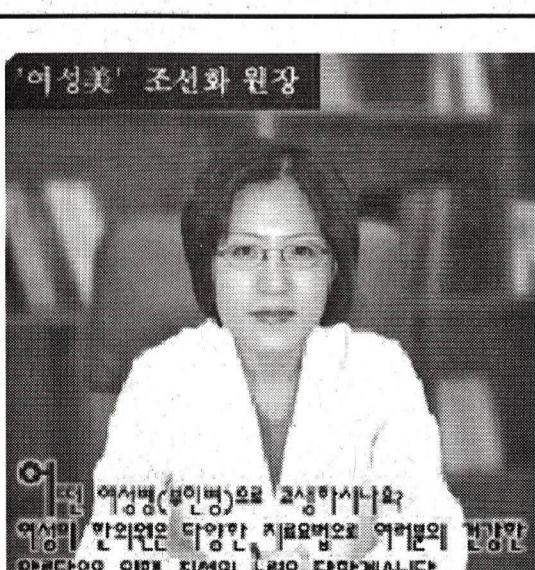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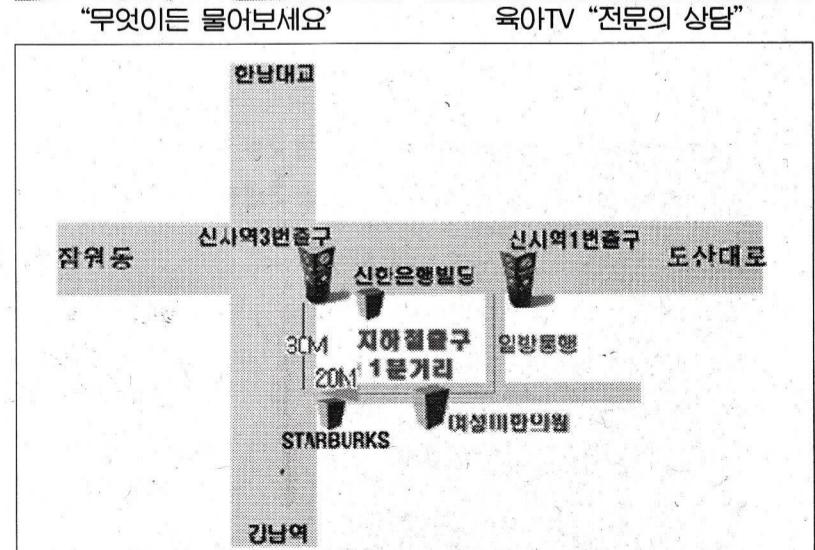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생활액분석기

자동필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 종교소리

## 인연

돌아보면 회한 가득한 것이 인생이지만  
내다보면 그래도 희망이 가물거리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도 산길을 걸으면서 눈길에  
내 발자국 찍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벽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또 희망을 향해 걷는 사람일 수도 있다.  
도솔천이 아니어도 이 곳은 아름답다.  
한 줌 바람과 별빛에 마음 건널 수  
있다면 그리고 늙어감을 귀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곳에서 부르는  
노래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눈길을 걸으며 사랑한다고 되뇌인다.  
인연으로 내 곁에 와 머물던 모든 것을  
저 흰 눈 속으로 떠나갈 때  
사랑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본다.  
그리움은 어제의 이름이다.  
오늘은 화롯불에 터지는 밤송이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기다리고 싶다.

## 꿈꾸는 섬

섬은 꿈꾸고 있었다.  
좌악 밀려오는 파도에 셧기우며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꿈속의 모랫벌에는 꿈속에서만이  
사는 어부가  
꿈을 낚는 그물을 깊고 있었다.  
얽힌 물실을 풀며  
억만겁 전생의 시간을 풀며  
꿈꾸는 섬의 어부는  
꿈속에서 꿈을 깨고 있었다.

- 오세영/방송인

## 기난한 사람에게

네 오늘도 그대를 위해  
창 밖에 등불 하나 내어 걸었습니다.

## 나도 한마디

## 세계속의 총지종이 되었으면...

총지종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자신 또한 부처님  
의 공덕을 많이 입었기에 간단하게나마 종단에 바  
라는 점을 몇 차 적어 볼까 합니다.

우선 젊은 스승님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발  
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종단운영을 설계하고 원로 스  
승님들은 지난 삶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  
대와 원로 스승님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종단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현재 한국  
의 가장 큰 갈등이 세대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고 하는데 우리 종단도 이점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  
습니다.

원로 스승님들께서는 젊은 스승과 신도들에게 지  
혜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신세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계종, 천태종 등 여타 종단에서는 이미 예  
전부터 공개법회를 통해 젊은 신도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는 변화를 인정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스스로를

(010-7777-1234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도심사찰 다양한 포교활동

## 시민프로그램으로 포교 활성화



수행과 명상법 강좌를 실시하고, 조계사는 자체 불교대학 강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교리와 더불어 해인사에서 1박2일 동안 산사체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행동해야”

####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 추대

**태고종은 6월 14일 서울 봉원사 설법 전에서 제4회 원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입적한 혜암스님 후임 종정에 전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혜초스님을 제17세 종정으로 추대하였다.**

혜초스님은 태고종의 대륜과 덕암종정의 청정수행 법맥을 이은 청정비구로서 불교의 발전과 수행에 전념해 왔으며, ‘스님은 스님답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제

인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사찰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불교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도심사찰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불교기본교육과 경전 강좌, 참선과 명상, 요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젊은 세대들의 웰빙문화에 동조하며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의 봉은사는 문화센터에서 직장을 대상으로 한 참선

###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30주기 열반대재

#### 천태종 정법중홍의 대종교가

천태종은 6월 14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총무원장 운데, 조계종 중앙종의회 의장지하,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종 종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3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삼가의례, 현회,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상월 원각 대조사야말로 무상대도를 성취한 각자요, 새 교화

운동을 전개해 정법중홍의 일대사인연을 수행하신 대종교가였으며 대조사의 가르침과 유업이 역사에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1945년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조사는 67년 법화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중창하고 주경야선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새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때 목사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지만 결국 저한테 설득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믿으면 천당가고 믿지 않으면 지

## 남북 민족화합의 우리민족대회

### 남북불교인이 조국통일 앞당기자

6.15 남북공동선언 4돌을 기념하는 우리민족대회 행사가 남과 북대표단과 해외동포 1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됐다.

불교계에서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범타스님을 비롯해 학담, 도각, 태고종 법현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 조선불교도연맹 산하 불교신도회 회장 라영식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남북불교인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고 다짐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북측 대표단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4년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열

었으며, 우리민족끼리 단결하고 또 화합할 때만이 살길이 생기고, 평화와 조국통일이 달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민족대단합선언을 통해 통일을 위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은 단합, 민족생존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단합 등을 실천해나가고자 다짐하였다. 이들은 기념식에 이어 두텁으로 나누어 ‘십봉사 력비공 굴리기’, 룬안에서 공치며 달리기, 등 체육대회와 남측의 신동진이나운서와 북측의 김경애씨의 사회로 예술공연과 마리톤대회, 강화유적지 순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북이 한민족임을 확인하였다.

무상대도를 성취한 각자요, 새 교화

을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바

르게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불공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아프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겠기에 시키는 대로 불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때 남편은 기독교인들의 설득에 못이겨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남편에게

“다른 집은 여사님들이 먼저 나오고 남편을 모시고 있는데 이 대은 남편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사람은 나오기가 더욱 쉬운데 교회에 안 나오느냐?”라고 물기나 남편은 “우리 집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한번 아내다 싶으면 절대 안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설득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지만 결국 저한테 설득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믿으면 천당가고 믿지 않으면 지

## 생활속의 밀교

###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것이 일체존재에 대한 불교의 시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항상 변화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법인설(三法印說) 가운데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이다. 제행무상을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다는 뜻이다. 제행의 제(諸)는 일체 모든 것을 말하고, 행(行)은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 ‘제행(諸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일체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불교 용어로 설명하자면,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여 항상(恒常) 불변(不變)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이 몸은 어제와 다른 없이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요 아주 그릇된 견해라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파하였다. 그릇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고 진리에 어두운 어리석음과

없다. 자연세계도 무상(無常)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양상한 가지만을 남긴다. 그러다 봄이 되면 새로운 씩이 트고 왕성한 생명력을 보인다.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어제까지 좋았던 감정이 오늘따라 나빠지고 괜히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불만과 불평이 자리잡고 있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

기를 바라고 많은 돈이 계속 내곁에 있기를 갈망한다. 자기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영원하지 못한 데서 우리는 난폭해지고 대립과 갈등의 감정이 치솟게 된다.

탐욕스러움과 인색함과 교만스러움 등은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서 나오는 부산물(副產物)들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중생들의 이러한 뒤바뀐 착각과 번뇌망상을 일깨우고자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를 우리에게 역설하신 것이다.

▶ 무상(無常)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불교적으로 말하는 ‘성불(成佛)’에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 즉 무명(無明) 속에 해매일때 우리는 중생(衆生)으로 살 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영원하지 못한 데서 우리는 난폭해지고 대립과 갈등의 감정이 치솟게 된다.

탐욕스러움과 인색함과 교만스러움 등은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서 나오는 부산물(副產物)들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중생들의 이러한 뒤바뀐 착각과 번뇌망상을 일깨우고자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를 우리에게 역설하신 것이다.

▶ 무상(無常)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을 때,

다 안정된 삶을 꾸려 갈 수 있다. 불교는 탐심(貪心)과 진심(嗔心),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탈을 구경으로 하고 있다.

해탈을 위해 모든 선업을 짓고,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자혜를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된 행위를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선업만을 지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그 행위 속에는 ‘제행무상’의 진리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늘 헤아리는 마음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그 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상이 없어서요”라고 말했더니 스승님께서는 “절에 모셔놓은 불상이 어디 진짜 부처님인가? 어리석은 중생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불가한 것이다” 등등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가슴 속에서 원인 모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된 사회와 기정을 이루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 주요사업내용

####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정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학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 노인 헌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림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응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우편번호 : 122-17117-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부산  
삼밀사

## 아름다운 인간미가 넘치는 밀법도량!

신록의 푸르름이 점점더 깊어만 가고, 들에는 노사꾼들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을 일구는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를 연상케하며 다가온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사회, 자신의 미움속에 탐심으로 기득차서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회, 인간의 따뜻한 정이 사라지는 사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이 잘되는 것에 속상해하는 사회속에서도 산속에 자란 나무와 들판에 편 풀들은 세상사의 물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아무런 저항없이 지속하며 사시사철 이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와 속상해하는 중생들을 위로한다. 이러한 자연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체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순수하고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곳. 이곳이 바로 극락이요, 해탈의 문이 열려있는 부산 삼밀사를 찾아본다.

### 삼밀사의 연혁

삼밀사는 총기10년 9월 부산시 영도구 영선1가 122-1번지에 주택을 매입하고 불단을 설치하여 삼밀사로 개설하고, 총기28년 영선동 109-1번지의 500평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신축하여 현봉사를 한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초대 의강종사, 신향각 전수님이 주교를 역임하여 총기24년 신향각 전수님이 열반한후 의강종사님이 현재까지 삼밀사의 주교를 역임하고 계신다.

### 항상 선한 일을 행하라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시달리노라면 누구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여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부모, 처자, 자녀, 명예, 등의 세속사에 걸려 쉽게 산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말하기를 권력이고 직장이고 다 그만두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애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버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짧았을 때는 세상의 애욕에 얹혀 인생의 참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평생을 다림쥐 첫바퀴 돌 듯 살다보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상한 인생동안 우리는 항상 착한 일, 보람된 일을 행하여 선업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도록 항상 정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악행이 되고 반대로 남에게 배풀기를 즐겨하여 복덕을 짓는 것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악행과 악담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평등심이 없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놓아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남의 행동과 말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진심이 일어나면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우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정리해야 하며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나쁜 말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과업을 짓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무심코 버린 말한마디로 인해 얼마나 큰 과보를 받는지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아리한과를 증득한 노비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져 응얼응얼 거리자 짚은 비구가 옆에서 듣고는 빙정거렸습니다.

“노장님 글 읽는 소리가 꼭 개



선행입니다. 또한 마음에 탐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보시를 생각해야 하며,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잘 닦아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순화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마음의 수양없이 억지로 선행을 밀어려하면 선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끊임 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늘 부처님 경전을 하루에 십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읽거나 염송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절로 순화됩니다. 수행을 통하여 차츰 순화되고 몸과 마음이 절절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며, 그 편안한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이 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편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에서 편안할 때 나의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는 편안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만 들어도 능히 삼복 도를 멀하게 되고 내 얼굴만 보아도 해탈을 얻어지이다.”라는 발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 탐진치를 없애고, 참된 선행을 행할 때 마음이 순화하고 해탈을 이루게 되도록 항상 수

짓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자 노비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아리한과를 증득하였다. 아리한을 비방한 죄는 저지 않느냐.” 순간 짚은 비구는 깊이 참회를 하였습니다. 이 참회의 과정은 지옥행은 면했으나 아리한을 비방한 과정으로 다음 생에 흰 개로



태어나 상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흰 개는 장사꾼들이 막다 남긴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다음날, 개가 고기를 훔쳐 먹은 것을 알아차린 장사꾼들은 개를 죽도록 두들겨 패서 구렁텅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목숨도 아니고, 산 목숨도 아닌 채 구렁텅이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지나다가 보고는 걸식을 해서 얻은 밥을 주고 법문도 해주었습니다.

“네가 악한 말 한마디로 개의 몸을 받았으니, 내 생에는 곤은 말만 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착한 말만 쓰도록 하여라.”

개는 그 법문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균제인데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7세때 사리불존자를 찾아가 상좌가 되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은혜를 깊이 위해 평생 비구계를 받지 않고 사미로 남아 존자를 따라 다니며 시봉을 하였습니다.

악한 말 한마디에 이와 같은 과보를 받았으니, 하물며 악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와 같이 공업증생으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시비를 논설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남에게 악한 말로 과롭힘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업신여긴 말을 행하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남을 존경하는 마음,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갖는다는 말처럼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1가 109-1  
전 화 : 051) 416-9835

### 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 악한 말 한마디로 인한 과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악행과 악담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평등심이 없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놓아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남의 행동과 말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진심이 일어나면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우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정리해야 하며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나쁜 말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과업을 짓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무심코 버린 말한마디로 인해 얼마나 큰 과보를 받는지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아리한과를 증득한 노비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져 응얼응얼 거리자 짚은 비구가 옆에서 듣고는 빙정거렸습니다.

“노장님 글 읽는 소리가 꼭 개

### 인터뷰

#### 삼밀사 주교 의강 종사

△정사님께서는 종단의 창종과 더불어 종단의 진리속에서 수행자로서 일평생을 생활하셨습니다. 충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십시오.

인연으로 본다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14살때 아들의 중학교 학격을 간접히 기원하면서 육자진언을 염송하시던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그후 6.25동란과 동시에 전쟁 포화속에서 우리각 모두는 피난길과 방공호에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부르고 염송하면서 잠이들고 또 다른 곳으로 피난길을 옮겼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종단의 큰 어르신이신 복지화 스승님도 우리와 함께 피난의 고통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쟁과 포탄이 잠시 멀어고 난 다음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불탄 잿더미와 양철지붕, 살았던 옛 집터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의 상처로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탄 집터에 움막을 치고 하루 하루를 어렵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육자진언은 우리 가족, 이웃 어르신, 아이 할 것 없이 염송하고 자성일에는 우리 가족만 해도 20여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교는 복지화 전수님이었습니다. 그 후 대구에서 학창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진각종을 창종하신 회당님과 우리 충지종의 종조 원정님이 함께 헌신하시던 대구 남산동 심인당에 나가면서 밀교신앙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군복무 및 복학,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산 서면에 위치한 정정심인당에 나가면서 신행생활을 하던 중 원정님께서 충지종을 창종하신 신향각 스승님과 함께 충지종으로 옮겨 신행생활을 하였습니다. 고 록정 대종사님은 저를 충지종 스승으로 입교케하신 큰 스승이십니다.

△그동안 정사님을 비롯하여 선배 스승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퇴임을 몇 개월 앞두고 후배 스승들을 위해 부탁의 말과 당부의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기의 인생관과 종교관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의강 종사

을 함께 한다면 종단의 미래는 지극히 불안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은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종헌, 종법이 존중되고 실현되며 스스로 자중하고 겸손과 양보의 미덕이 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명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사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에 달리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가 얼마나 제도되어 있는지... 남다른 방편도 없이 원정님께서 설하신 “스승의 사명”을 읽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선배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수행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사님을 비롯하여 선배 스승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퇴임을 몇 개월 앞두고 후배 스승들을 위해 부탁의 말과 당부의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기의 인생관과 종교관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 잘못된 지난날을 참회하고 용서와 이해를 빌며

####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

공덕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밀사 교도들이 어려운 여건과 타 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지종의 청정수행 도량 삼밀사를 건립하여 비록 적은 가족이지만 모두가 화합과 단결하여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사님께서는 충지종에서 사감원장, 원의원, 종양종의회 의장 등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동안 종단의 발전을 위해 평소부터 생각하고 계시는 지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사이에 록정 대종사님, 수성 대종사님과 속세의 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33년전 창종당시와 현재는 시대의 물결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패턴이 엄청나게 바뀌고 변하는 사회환경과 정신문화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변화해가는 현실속에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통적 고정관념속에서 얼마만큼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나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를 참거울속에 여과없이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나이가 많다고 장자가 아니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후배 스승들을 대하면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지난날을 참회하고 용서와 이해를 빌며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 전 대적인 생활습관과 자세는 즉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학연, 지역, 및 평소 자기와의 친疏성을 이유로 뜻

